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호

발행인 : 박종우

발행일 : 2022년 12월 5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한국타이어 회장님

경영에서 손 떼시죠!



계열사로 이익 빼돌려 배당 챙겨가는 총수일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불법과 비리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회장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계열사는 총수 일가에게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국타이어의 이익을 계열사로 빼돌리고, 그 이익금을 총수 일가에게 배당한 것이다.

노동자에게는 적자 타령! 뒤로는 부당거래!

한국타이어는 올해 교섭에서 끝없이 적자 타령을 했다. 그래서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국내공장의 적자를 얘기하며 해외공장으로 물량 이전한다고 압박하는 등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한국타이어 국내 공장의 적자는 총수일가가 계열사로 이익을 빼돌려 자기들 주머니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총수일가는 108억원을 배당받아갔다. 탐욕에 눈이 멀어 노동자를 착취할 생각만 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한국타이어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미타결 사업장 투쟁은 지부 전체의 투쟁!

한국타이어와 다우케미칼실리콘이 아직 2022년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타결 사업장은 현장의 파업 투쟁, 본사 투쟁 등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불법과 비리의 온상 한국타이어, 노동자 비하하는 다우케미칼실리콘. 지부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하자. 노동자의 피땀을 무시하는 자본에게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